IFES 연구보고서
2022-01



AUKUS 참여국의 국익 분석

정 재 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정 재 욱

美 라이스대 정치학 박사
現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연구분야: 군사동맹, 국제안보, 동아시아 안보 문제 및 한미 동맹
주요 논문: "1960년대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검토 연구" (2022), "How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rom a Commitment Problem Perspective" (2020), "Capability Distribution between Allies, Geographical Proximity and Alliance Duration" (2020) 외

IFES 연구보고서 2022-01

AUKUS 참여국의 국익 분석

인 쇄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발 행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발행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 소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전 화 02-3700-0700
팩 스 02-3700-0707

인쇄처 ㈜늘품플러스(070-7090-1177)

정 가 비매품
ISBN 978-89-8421-547-4 93340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IFES

목차

Ⅰ. 목적과 구성 **3**

1. 목적 3
2. 구성 4

Ⅱ. AUKUS의 성립과 발전 **7**

Ⅲ. 참여 국가별 국익 분석 **13**

1. 미국 13
2. 호주 22
3. 영국 29

Ⅳ. 종합 분석 **37**

1. AUKUS는 왜 결성되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37
2. 왜 미국은 호주를 택했는가? 39
3. AUKUS는 순항할 것인가? 40
4. 정책적 함의 42

참고문헌 **45**



I

목적과 구성

Ⅰ. 목적과 구성

1. 목적

○ 본 보고서는 2021년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간에 합의된 안보 협력체인 AUKUS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목적으로 함.

○ 기본적으로 AUKUS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중국에 대한 견제 의사를 명백히 한 미국을 제외하면, 호주와 영국은 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김.
- 우선 영국은 유럽에 속한 역외 국가로, 지리적 원근성을 고려해 볼 때, 아시아에서 유사시 군사적 관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점이 생김.
- 또한 호주 역시 비록 역내 국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중국과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이기에 과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실존적 위협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김.

○ 따라서 국가는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자라는 가정 하에서, AUKUS에 참여하는 개별 국가의 이익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AUKUS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AUKUS의 향방에 대해 전망해 보려고 함.

○ 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핵잠수함 전력 누수가 예상되는 2030년대 중반 이후에 호주의 핵잠수함 전력이 구축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것의 의미와 실행가능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국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고 함.

2. 구성

○ AUKUS의 성립 배경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요약

○ 각 국가별 국익 분석

○ 종합 분석

Ⅱ

AUKUS의 성립과 발전

Ⅱ. AUKUS의 성립과 발전

○ 2021년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정상은 AUKUS로 명명한 3개국 안보 협력체 발족을 선언

○ 영국이 중개자 역할로 미국과 호주의 참여를 유도
- AUKUS에 대한 논의는 미국과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영국이 중개자 역할을 통해 호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함(Landler 2021).
- 영국이 가장 나중에 초대된 국가가 아니라 초기에 결성을 주도했다는 점은 영국이 AUKUS에 대한 상당한 이니셔티브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음.

○ AUKUKS 3개국 합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호주에게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호주가 향후 2040년 정도까지 최소 8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 사실상 언제까지 핵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확실한 시간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호주가 AUKUS 합의와 동시에 철회한 프랑스와의 디젤 잠수함 건조 계획은 2030년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음. 이를 고려하면, 핵 잠수함의 건조는 빨라야 2030년대 후반 정도에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따라서, 2040년 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핵 잠수함 편대가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2021년 9월에 AUKUS 창설이 선언되고, 2021년 11월 22일에는 호주 캔버라에서 이와 관련된 공식 조약이 체결됨.
- 이 문서의 공식 명칭은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Exchange of Naval Nuclear Propulsion Information"[1]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함.

○ AUKUS의 창설 당시 이후 18개월 간의 연구 및 협의 기간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
- 핵추진 잠수함은 현재 미국의 버지니아급(Virginia-class)과 영국의 어스튜트급(Astute-class)이 후보이며, 어느 국가의 어떤 모델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함.
- 어느 종류를 택할 것인가의 문제뿐 아니라 언제까지 건조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 결정사항임.
- 현재 8척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총 1700억 달러[2]가 투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와의 디젤 잠수함 건조 계획과 비교해 볼 때 약 2배가 넘는 금액으로, 호주는 기술이전이나 국내 조선업체 및 방산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호주는 AUKUS를 체결하면서 프랑스와의 디젤 잠수함 건조 계획을 파기했으며, 이로 인해서 프랑스 외무장관이 "등에 칼을 맞았다"라고 격하게 표현할 정도로 양국 간 외교 문제가 발생했음.

○ 호주는 2022년 5월 국내 총선 결과 AUKUS 합의를 이끌어 냈던 모리슨

1_ 위 문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획득가능.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australiausa-agreement-for-the-exchange-of-naval-nuclear-propulsion-information-ms-no82021 (2022/4/8)

2_ 여기에서 1700억 달러는 미 달러가 아니라 호주 달러이며, 이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달러 금액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두 호주 달러임. 호주 달러는 대강 1 US 달러: 1.45 호주 달러 정도로 계산 가능.

총리가 정권을 노동당에 넘겨주게 되면서, 이 점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음.

- 호주 노동당은 알바네즈(Anthony Albanese) 총리를 내각 수반으로 출범했으며, 국방장관으로 말스(Richard Marles)씨가 임명되었음.
- 기본적으로 노동당은 AUKUS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해 왔으며, 다만 프랑스와의 빠른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음.
- 다만 노동당의 전 총리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키팅(Paul Keating) 전 총리는 AUKUS나 반 중국 정책에 대해 반대해 온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노동당의 입장 변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의 법안 제정(Australia-US Submarine Officer Pipeline bill)

- 2022년 6월 이 법안을 통해서 호주의 군인들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에서 훈련받는 것이 가능해졌음(Shelbourne 2022).

Ⅲ

참여 국가별 국익 분석

Ⅲ. 참여 국가별 국익 분석

○ AUKUS 참여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 이 세 국가의 개별적 국익 분석을 통해 이 국가들이 AUKUS를 통해 실현하려는 국익이 무엇인가를 분석함.

○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왜 AUKUS가 성립되었으며, 향후 이들 국가의 이익은 실현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 국가의 이익이 서로 충돌할 여지는 없는가를 살핌으로써, AUKUS의 향후 향방을 추정해 볼 수 있음.

○ 분석의 편의를 위해 미국, 호주, 영국의 순서로 각 국가별 이익을 분석

1. 미국

○ 미국이 AUKUS를 통해 추구하려는 국익은 일차적으로 군사적인 데에 있는 것으로 보임.

○ 미 해군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의 해군 전력, 특히 공격형 잠수함 전력은 2030년대와 2040년대의 기간 동안 전력의 약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은 AUKUS를 통해서 2030년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해상 전력의 격차, 특히 잠수함 전력의 격차를 메우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려는 보다 직접적인 동기는 향후 미국의 해군력, 특히 잠수함 전력이 약화되는 2030년대와 2040년대 초를 겨냥한 포석으로 보임.

○ 아래에서는 위의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미군의 현재

잠수함 전력에 대해 살펴보고, 2030년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의 공백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고, AUKUS를 포함한 미국의 대응책에 대해서 논의하겠음.

(1) 미국의 현 잠수함 전력

○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해군 잠수함은 모두 핵추진 잠수함으로, 14척의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4척의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50척의 공격형 잠수함(SSN)으로 이루어져 있음.
- AUKUS와 관련 특히 주목해야 할 잠수함은 2022년 현재 50척에 이르는 공격형 잠수함(attack submarine)임[3].
- 참고로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순항미사일 잠수함은 모두 오하이오급(Ohio class) 잠수함으로 향후 컬럼비아급(Columbia-class)으로 대체될 예정임.

○ 특히 전력의 공백이 우려되는 잠수함 전력은 현재 50척을 보유하고 있는 공격형 잠수함임.
- 공격형 잠수함(attack submarine)은 보통 핵추진 잠수함(SSN)으로 지칭되며,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는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음.
- 공격형 잠수함은 전력 투사(power projection)에 유용하며, 특수전(SOF) 및 첩보 수집, 감시 및 정찰뿐 아니라 대수상함전, 대잠수함전 등에 사용되며, 특히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군사적 경쟁을 염두에 둘 때, 대잠수함전(ASW)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O'Rourke 2022: 1-2; US Navy 2021).

○ 2022년 현재 실전 배치된 공격형 잠수함은 총 50척으로, 크게 3가지

3_ 핵추진 잠수함(SSN)과 공격형 잠수함(attack submarine)은 같은 의미로 사용됨.

종류로 나뉘어짐.

- 가장 구형이지만 주축인 (1) 로스앤젤레스급(Los Angeles class) 27척, (2) 시울프급(Seawolf class) 3척, 그리고 가장 신형인 (3) 버지니아급(Virginia class) 20척[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약 60%가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음(Eckstein 2022; Kaushal 2021).

○ 로스앤젤레스급: 2022년 현재 27척으로 잠수함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62척이 건조되어, 1976년부터 1996년까지 취역했으며(O'Rourke 2022: 6), 잠수함의 수명이 약 30년임을 고려하면, 2026년까지 모든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은 퇴역해야 하는 상황임.

- 만약 모든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이 2026년까지 퇴역하게 된다면, 202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이 보유한 공격형 잠수함의 수가 급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Eckstein 2022).
- 즉 예정대로 모든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이 퇴역한다면 2028년 새로이 건조되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포함한다 해도 40척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될 것임.
- 현재 50척에서 27척이 퇴역하면 23척이 남고 매년 2척씩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추가된다고 해도 총 핵추진 잠수함의 수는 23+12=37척에 불과

○ 시울프급: 미국이 보유한 또 다른 종류의 공격형 잠수함으로 단 3척만을 건조했으며, 현재 이 3척을 운용하고 있음.

- 2022년 현재 실전 배치 중인 시울프급 잠수함은 각각 1997년, 1998년과 2005년에 취역
- 시울프급 잠수함은 원래는 30여척의 건조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4_ 가장 최근에 취역한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오레곤(Orgeon)호임 (US DOD 2022)

냉전의 종식에 따른 필요성 감소로 다수를 건조하려던 계획은 취소되었음.

- 특히 시울프급 잠수함 중에서 2005년에 마지막으로 실전 배치된 지미 카터호는 전장 약 138m로 로스앤젤스급이나 버지니아급, 그리고 다른 시울프급보다 길이가 20m 가량 더 긴 대형 잠수함이었으나, 이러한 대형 잠수함은 이후 더 이상 건조되지 않음(O'Rourke 2022: 6; US Navy 2021).

○ 버지니아급: 현재 미국의 최신예 잠수함으로 현재 20척이 실전 배치되었음.

-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2004년부터 취역하기 시작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미국이 호주에 잠수함을 제공한다면,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될 것임.
-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따라서 2030년대 중반부터 순차적으로 퇴역
-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의 건조 시간에 비해서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건조에 소요되는 시간은 훨씬 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버지니아급 한 척이 건조되어 해군에 인도되기까지 약 7-8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Eckstein 2022).
- 로스앤젤레스급의 경우 한 해에 5-6척이 해군에 인도되기도 했으나 현재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1년에 1-2척이 해군에 인도되고 있으며, 사실상 1년에 2척 인도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의 실현도 여의치 않은 상황임(Eckstein 2022).

(2) 미 잠수함 전력 공백과 대응책

○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현재 미 해군의 공격형 잠수함 전력은 현재의 건조 속도와 기존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의 수명을 고려해 볼 때, 202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임.

○ 미 해군은 중국 해군의 성장을 고려, 2030년대 중반까지 총 355척의 선박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공격형 잠수함은 66-72척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음(O'Rourke 2022).
- 이러한 미국의 선박과 잠수함 건조 목표는 중국 해군 전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임.

○ 중국은 선박 수 면에서 볼 때 세계 최대의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미국의 제해권에 위협을 줄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총 355척에 이르는 해군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잠수함 포함), 2025년까지는 420척, 2030년까지는 460척까지 증가할 것으로 미군은 예측하고 있음(US DOD 2021: 49).
- 특히 중국은 잠수함 전력의 현대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2020년대 기간 동안 65-70척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후화된 잠수함은 1:1의 비율로 새로운 신형 잠수함으로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US DOD 2021: 49).
- 모든 공격형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인 미국과 달리, 중국은 46척의 디젤잠수함, 6척의 핵추진 잠수함(SSN) 등 총 52척의 공격형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6척의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역시 보유하고 있음(US DOD 2021: 49).
- 중국은 2025년까지 추가로 25척 정도의 유안급(Yuan class) 잠수함(디젤 잠수함)을 더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8척의 SSBN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임(US DOD 2021: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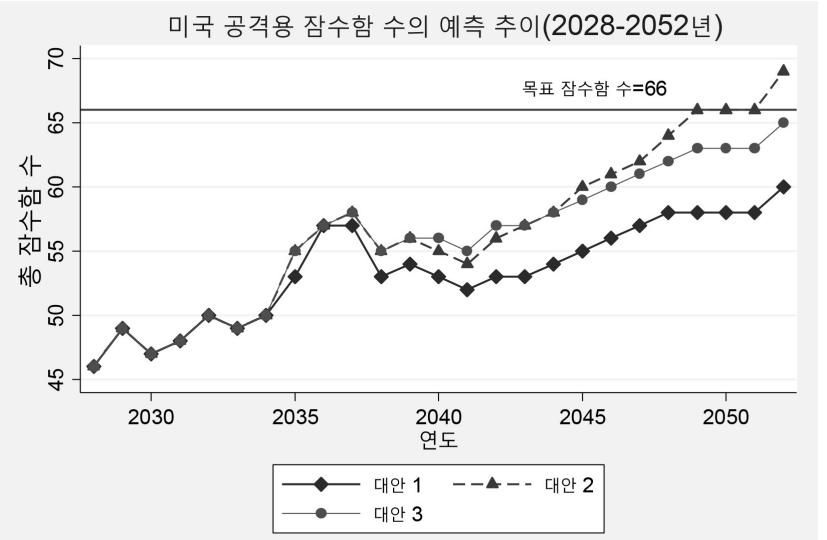
○ 중국의 현 잠수함 전력은 사실상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해군력을 계속해서 신장해나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볼 때 2030년 이후는 미국에게 더욱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임(Kaushal 2021).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66-72척의 공격형 잠수함 전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표는 아무리 빨라도 2045년 이후에나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임(아래 〈그림 1〉 참조).

○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대 중반부터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의 퇴역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잠수함 전력의 급격한 약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전력 약화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잠수함 조달에 지체가 발생한 것은 1990년대, 냉전 직후, 잠수함 조달 계획이 원활하게 수립·집행되지 않는 데 기인함(O'Rourke 2022: 2).
- 현재 미 해군은 355척의 선박, 그리고 66척의 공격형 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냉전기인 1980년대에는 총 600척의 선박과 100척의 공격용 잠수함을 목표로 추진, 이에 거의 근접한 바도 있음(O'Rourke 2022: 2).
- 단순히 이 목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추진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이었던 에스퍼는 해군력 증강 및 잠수함 전력의 증강을 강력히 지지하였음(Larter and Mehta 2020).

○ 〈그림 1〉은 2020년대 중반부터 2052년의 기간까지 미 공격형 잠수함 전력의 예상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 아래의 그래프에서 대안 1, 2, 3은 각각 인플레와 재정 여건을 달리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수치임.
- 대안 1이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한다면, 대안 2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으로 작성한 안이라고 볼 수 있음.
- 2022년 현재 총 50척의 공격형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2028년에는 매년 2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해군에 인도된다고 해도, 총 잠수함 수는 46척으로 저점(trough)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사실상 이 46척이라는 수치도 이전에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 것으로 예상됐지만(Burgess 2021; Eckstein 2022), 기존의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의 수명 연장을 통해 퇴역을 늦춤으로써 그 수를 늘려잡은 것임(이에 대해서는 후술).
- 미 해군은 50척을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잠수함 수로 생각하고 있으나(Burgess 2021), 이러한 50척이라는 조건이 안정적으로 충족되는 것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035년 이후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림 1〉의 대안 1을 기준으로 볼 때, 2036-2052년의 기간 동안 평균 공격형 잠수함 수는 55척에 불과하며, 대안 2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기간 동안 평균 60척 정도가 됨.
- 즉 이 기간 동안 목표치인 66척과는 최소 6척(대안 2를 기준으로 할 때)에서 최대 11척(대안 1을 기준)의 차이가 존재하며, 가장 낙관적인 안의 경우(대안 2)에만 거의 2050년이 되어서야 목표인 66척에 도달



출처: O'Rourke (2022b) 12쪽의 도표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1〉 미 공격용 잠수함 수의 예측 추이(2028-2052)

○ 이러한 잠수함 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응책의 하나로 비교적 상태가 좋은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의 퇴역을 늦추는 방안이 해군 내부에서 논의되었음.
- 정확한 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선체 상태가 좋고 핵연료가 남아 있는 5-7척 정도의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의 퇴역을 3-6년 정도 늦추려고 계획하고 있음.
- 참고로 〈그림 1〉에는 이러한 대응책이 반영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역을 늦추지 않는다면 공격형 잠수함의 수는 40척 미만으로 급감이 예상되었음.
- 하지만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의 퇴역이 연장된다고 해도 2035년까지는 어쨌든 모두 퇴역해야 함.
- 따라서 퇴역 잠수함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잠수함 전력의 급격한 약화를 막는 미봉책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 대안은 될 수 없음.

○ 미 해군에서 논의되는 또 하나의 대안은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건조 속도를 높임으로써,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잠수함이 해군에 인도되도록 하는 것임.
- 최초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건조에 84개월이 걸렸지만 현재는 61개월로 줄었으며, 55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Eckstein 2018).
- 또한 잠수함 연 잠수함 인도 비율(즉, 매년 인도되는 잠수함의 수)를 1.76-2.23으로 계획함으로써 향후에는 매년 2척 이상도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 조달 계획을 고려하고 있음(O'Rourke 2022a: 3).
-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잠수함 건조를 위한 조선소의 증설과 같은 인프라 투자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음(Eckstein 2022b).
- 현재 미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두 곳의 조선소, General Dynamics Electric Boat(코네티컷 주)와 Newport News Shipbuilding(버지니아 주)에서 건조되고 있음.

- 결국 이러한 자체 조달 계획의 실현 여부는 재정적 여건과 긴밀하게 연관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사정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미 해군은 오하이오급 잠수함(SSBN)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형 잠수함(컬럼비아급)의 개발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격형 잠수함의 조달이나 건조에 변수가 되고 있음(Eckstein 2022a).

○ 따라서 이러한 미 해군 잠수함 전력의 공백을 메우는 한 가지 방안으로 AUKUS가 기획되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음(Kaushal 2021).
- 앞의 〈그림 1〉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203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50년대까지 미국의 공격형 잠수함은 필요한 수준보다 과소 공급될 수밖에 없으며, 이 숫자는 대략 호주가 AUKUS를 통해서 배치하려는 공격형 잠수함의 수(8-12대)와 대강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즉,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 예상되는 시기와 전력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의 수가 부족한 시기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역량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호주의 잠수함 전력이 미국의 잠수함 전력을 보충할(augment) 것이라는 점은 AUKUS 결성 발표 직전에 진행된 백악관의 언론 브리핑에서도 미국 고위관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This allows Australia to play at a much higher level and to augment American capabilities that will be similar(White House, 2021, 밑줄 강조는 저자).
- 따라서 필요한 10여척 정도의 잠수함을 호주에서 건조된 핵추진 잠수함으로 보충함으로써 최소한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

○ 위의 점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이 AUKUS로부터 기대하는 이익은 무엇보다

군사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음.

○ 결국, 미국이 AUKUS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국익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이며, AUKUS는 이론의 여지 없이 대 중국 견제책임.
- 군사 기술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간주되는 핵추진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보다 강화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더욱 강화된 미국의 장기적 대 중국 견제 전략을 의미함.
- 더욱이 많은 핵전문가들이 핵비확산(NPT) 체제에 대한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농축우라늄(HEU)에 기반한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호주를 통한 중국 견제에 미국이 큰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함.

○ 물론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판매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을 것임.

○ 미국으로서는 이 지역에서 자신의 군사적 우위 유지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핵추진 잠수함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됨.

2. 호주

○ AUKUS의 핵심 당사국인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을 획득함으로써 지역의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국내 방위산업이나 조선산업에 대한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모두를 추구할 것으로 보임.

○ AUKUS를 통해서 호주는 8대의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받도록 되어 있지

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0일 간의 연구와 협의 기간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호주 국내에서는 180일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결정하자는 여론이 비등함.

○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에 비해 가지는 성능의 우월성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의 확보가 디젤잠수함 편대의 구축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의 확보 노력이 후술할 '전력의 격차(capability gap)'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음(The Australian 2021).

○ AJUKUS의 당초 계획, 즉 8대의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계획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어떻게 적절한 시기 내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배치함으로써 '전력의 격차(capability gap)'를 줄일 것인가의 문제임.

- 호주는 현재 6척의 콜린스급(Collins class)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잠수함은 스웨덴에서 건조된 디젤잠수함으로, 2030년대 후반까지는 모두 퇴역이 예정되어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프랑스로부터 9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신형 디젤잠수함 12척을 구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 여기에서 '전력의 격차'란 콜린스급 잠수함이 퇴역하는 시기와 새로운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되는 시기 사이의 시차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전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리킴(Stewart 2021a).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약 호주가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프랑스의 디젤잠수함을 도입했다면, 전력의 격차는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음.
- 하지만, 호주가 중국과의 대립 관계를 분명히 하고, 또한 2030년대 이후 중국의 해군력이 더욱 강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력의 격차' 문제는 호주 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The Australian 2021).

- 호주의 신임 국방장관인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는 호주 국방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이 전력의 격차를 메우는 데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Peckham 2022).

○ 전력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기존의 콜린스급 잠수함을 개조하자는 안이 대두되고 있음(Stewart 2021a).

-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기존의 콜린스급 잠수함 개조(refit)를 통해 잠수함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임.
- 콜린스급 잠수함은 1996년과 2003년 사이에 취역했으며, 잠수함의 수명이 30년 정도임을 고려하면, 2026년부터 순차적인 퇴역이 예정되어 있었음.
- 콜린스급 잠수함 한 척을 개조하는데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조를 통해서 수명을 10년 연장할 수 있음.
- 만약 이 방안을 채택한다면, 콜린스급 잠수함은 2026년부터 매년 한 척씩 교대로 개조되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고, 2038년부터 2046년까지 수명이 연장되어 배치될 것이 예상됨.
- 하지만 이 방안의 단점은 노후화된 잠수함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한다는 점에서 잠수함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또한 성능 면에서 중국의 잠수함에 크게 뒤떨어질 수 있다는 점임.
- 최초 핵추진 잠수함이 빠르게 건조되어서 2040년에 1척을 최초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매 3년 후마다 핵추진 잠수함이 1척씩 추가 배치된다고 가정하면, 2038년에 콜린스급 1척이 퇴역하게 된다면 호주는 5척의 잠수함 선단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2040-41년에 추가 배치로 총 5척(1대의 콜린스급 또 퇴역해서 4척의 콜린스급과 1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임.

-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2053년에 총 5척의 핵추진 잠수함이 배치됨(콜린스급은 모두 퇴역).
- 이처럼 노후화된 콜린스급 잠수함을 신형 핵추진 잠수함으로 교체한다고 해도, 2053년에야 5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호주 입장에서는 전력의 격차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임.

○ 전력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미국이나 영국으로부터 버지니아급이나 어스튜트급의 잠수함을 리스하는 것임(Stewart 2021a).
- 이 방안은 과거 인도가 1987-1991년 기간 동안 소련의 핵추진 잠수함을 리스해서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방안임(Unnithan 2021).
-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모두 호주에 리스를 해 줄만한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다지 현실적인 대안은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 전력 격차를 메우기 위한 세 번째 방안으로 재래식 잠수함을 추가적으로 건조하는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음(Stewart 2021a).
- 전 자유당 정부의 국방장관인 더튼은 이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으나 현 국방장관인 말즈는 이 방안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Packham 2022; Stewart 2022a).
- 하지만 이 경우에 왜 프랑스의 제안을 거부했는가의 국내적 반향이 생길 수 있고, 또한 3종의 잠수함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자원의 낭비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
- 만약 이 안이 부분적으로 채택된다면, 가장 유력한 방안은 기존의 콜린스급 잠수함을 제작했던 스웨덴의 삽 코쿰스(Saab Kockums)사의 업그레이된 콜린스급 잠수함이 될 수 있음(Stewart 2022a).

○ 마지막으로 논의되는 방안은 잠수함의 건조 시기를 앞당겨서 호주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핵추진 잠수함을 인도하는 것임(Stewart 2021a).
- 현 자유당의 당수이자 전임 국방부 장관인 더튼(Peter Dutton)은 미국으로부터 코네티컷에서 건조된 두 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2030년 말에 인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Gross 2022).
- 만약 2030년에 2척의 핵추진 잠수함이 호주에 들어온다면, 이는 예상보다 최소 10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전력 격차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음.
- 현재 핵추진 잠수함은 가장 빨라야 2040년대 초반에 인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핵추진 잠수함의 호주 국내 건조를 추진한다면, 이 시기는 훨씬 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하지만 2030년 2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인도설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확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그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더튼 전 국방장관은 밝히지를 않았음.
- 기본적으로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두 곳 모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 해군의 요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2030년에 두 척의 잠수함을 먼저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 설령 인도된다고 해도, 이를 운용, 보수,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군인들이 호주에는 부재한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훈련된 인력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해군 승무원 인력이 호주에는 부재한 상황임.
- 더욱이 미국의 잠수함을 택할 것인지 영국의 잠수함을 택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인도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임.
- 물론 미국의 잠수함과 영국의 잠수함을 섞어서 들여올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잠수함의 작전운용(inter-operability)을 고려해 볼 때, 미영 양국의 잠수함을 모두 운용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님.

- 미국의 잠수함을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영국의 잠수함을 도입할 것인가의 호주 내의 논쟁과 관련, 미국 잠수함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군사동맹의 작전운용을 고려해 볼 때, 미국 잠수함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국의 잠수함을 선호하는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보나 기술 이전의 경우, 미국보다는 영국이 훨씬 호의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Stewart 2021).

○ 호주의 AUKUS 계획 실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추가적인 쟁점은 과연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임.

○ 호주 국내의 방위산업체와 국내 조선업체가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향후 호주 관련 산업의 발전, 핵 관련 숙련 인력의 계발과 국내 고용 촉진 등 여러 경제 문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안보와 더불어 호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
  - 모리슨 총리는 “우리는 미영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아들레이드(Adelaide)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고 한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는 AUKUS의 국내 경제 부양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AUKUS에 대한 국내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음(Amaro and Macias 2021).
  - 또한 모리슨 총리는 미국이 아들레이드에서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신뢰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은 많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건설할 수 있는 또 다른 국가를 원했기 때문에 AUKUS 합의가 가능했다고 역설(Brown 2022)
  -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국내 건조의 비중이 얼마만큼이 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음.
    * 아들레이드는 남부 호주의 수도로 여기에는 오스본 해군 조선소(Osborne Naval Shipyard)가 위치해 있으며, 여기에서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이 생산되었고, 호주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새로이 집권한 노동당은 이전의 자유당보다 잠수함의 국내 건조 비율을 높이는 것에 더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음.
- 자유당 정부의 더튼 국방부 장관은 국내 건조도 중요하긴 하지만 안보 문제가 더 일차적 과제라는 입장에서 해외에서 건조되어 국내에 들여오는 것도 수용가능한 입장이었음(Brookes 2022).
- 하지만 노동당은 집권 전 AUKUS 합의 초기 단계부터 이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에 국내 방위산업의 비중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그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지나치게 방위산업의 참여를 강조하게 되면, 잠수함 건조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음(Packham 2021b).
- 만약 호주 국내에서 건조된다면 실전배치까지 20년을 훨씬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Packham 2021b).

○ 프랑스와의 계약 파기로 디젤잠수함 건조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호주 인력도 현재 실직 상태로 대기 중(Slattery 2022).
- 프랑스와의 디젤잠수함 계약이 파기되면서, 아들레이드에 있던 방위 및 건설산업 관련 일자리 3000개가 사라졌으며, 이들 인력은 현재 실직 상태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동당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의 참여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AUKUS의 진행상황에 대한 상원의 중간평가 보고서(노동당이 주도)에서는 국내 방위산업의 참여가 미비할 경우에 국내 방위산업과 조선산업의 "valley of death"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Brookes 2022).
  * "valley of death"는 일반적으로 연구와 상용화 사이의 갭으로 인

해서 기업이 몰락하는 것을 의미함. 여기에서는 호주 국내 방위산업이나 조선산업이 잠수함 건조의 참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

- 호주 방위산업연합회장은 호주 정부는 미국과 영국에 AUKUS가 잠수함 수출의 기회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England 2022)

○ 요약한다면, AUKUS 관련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통해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모두를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잠수함 전력의 격차 문제와 국내 건조를 통한 고용 및 경기 진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임.

3. 영국

○ 영국이 AUKUS에 참여한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이 있음.

- 무엇보다 영국은 아시아 지역 내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고, 더욱이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여기에 참여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가가 의문시 되기 때문임.

○ 영국의 AUKUS 참여 이유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은 2021년에 발간된 영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에 관한 문서임.

- “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라는 제하의 이 문서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HM Government 2021).
-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문서에서 “인태지역으로의 지향(Indo-Pacific Tilt)”을을 언급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
- 이 문서는 기본적으로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의 위상을 “글로벌 영국

(Global Britain)"으로 설정하고 국가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핵심 전략으로 "인도-태평양 지향(Indo-Pacific Tilt)[5]"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의 근간으로 이해됨.

○ 인태지역으로의 지향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인도 태평양으로의 지향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음. "The Indo-Pacific region matters to the UK: it is critical to our economy, our security and our global ambition to support open societies."(HM Government 2021: 66)
- 주목할 점은 경제가 안보라는 단어보다 먼저 사용되었다는 점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경제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고 있음.
- 이 문서에서는 인태지역이 전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적 기회의 지역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영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차적인 관심은 군사적인 것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 문서 발간 직전에 출간된 영국의 주요한 씽크탱크(Policy Exchange)의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대 아시아 관여 정책의 하나로 포괄점진적환태평양파트너쉽CPTPP) 가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권고하고 있음(Harper 2020: 9).

5_ 여기에서 tilt라는 단어는 보통 사전적 의미로 경사, 기울임 등을 의미하고, 이를 본 연구서에서는 지향으로 번역했음. 이 tilt라는 단어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관심을 돌렸을 때 사용했던 pivot이라는 단어와 대비될 수 있음. pivot이라는 단어는 어떤 축이 바뀐다는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pivot to Asia는 미국의 전략적 축이 아시아 지역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반면, tilt라는 단어는 그러한 전략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의미보다는 아시아 지역에 보다 관심을 기울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안보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서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됨.
- 즉, 경제적 교역이 영국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항행의 자유와 관련된 측면에서 군사적인 관여 역시 적극 고려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영국의 AUKUS 가입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
- 즉, 경제적 이득을 위한 인태지향이라는 관점에서 영국의 AUKUS 가입을 이해할 수 있음.
- 영국 씽크탱크의 한 전문가는 영국은 과잉팽창의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AUKUS가 영국에게 어떤 군사적 의무(military commitment)를 지우지 않았다고 강조(Niblett 2021)
- 이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영국이 AUKUS 가입을 통해 우려하는 점은 과잉팽창이나 아태 지역에서 어떤 군사적 의무, 예를 들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

○ 미국은 AUKUS 출범과 관련된 언론 브리핑에서 영국의 AUKUS 참여를 일종의 “Down Payment”라고 지칭(White House 2021)
- Down Payment란 어떤 제품을 할부로 구매할 때 제일 처음 지불하는 착수금 혹은 계약금을 의미하는데, 미국 측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영국의 AUKUS 참여와 관련, 많은 점을 시사
- 이는 영국이 이 지역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맹주인 미국에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AUKUS 가입은 그러한 의미에서 일종의 “비용을 수반한 시그널(costly signal)”[6]로 간주할 수 있음.

6_ 비용을 수반한 시그널의 개념에 대해서는 Fearon (1994)를 참조. 이 개념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말한다면, 자신의 의도를 진정성 있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임. 예를 들면, 선물은 자신의 감사함의 의사를 표현하는 비용을 수반하는 시그널임.

- 다시 말하면, 영국의 AUKUS 가입은 영국이 경제적 이익의 댓가로 미국에 대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적인 지원 역시 어느 정도 떠맡겠다는 약속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는 미국이 영국이 이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댓가로 이에 상응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군사적 관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
- 다만 미국은 높은 수준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반면, 영국은 지나친 군사적 연루는 피하려고 할 것임.
- 앞서 언급한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고위관료는 앞으로 영국이 얼마나 더 지역에 대한 관여를 늘릴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으나, 영국의 보다 깊은 관여를 원한다고 말함으로써 영국을 우회적으로 압박 ("... I think what we heard in all those conversations is a desire for Great Britain to substantially step up its game in the Indo-Pacific." (White House 2021; 밑줄은 저자))

○ AUKUS를 통해서 영국은 경제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음
- 영국은 AUKUS를 통해서 자신의 최신형 어스튜트급(Astute class) 잠수함의 판매하게 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음.
- 영국은 이미 총액 450억 달러에 달하는 헌터급 호위함 7척을 호주에 판매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으며, 만약 핵추진 잠수함까지 판매하게 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음(Stewart 2022).
- 의회 보고서에서도 AUKUS가 방위산업에 "수지가 맞는(lucrative)" 거래임을 인정(Brooke-Holland et al. 2021).
- 즉 영국이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상당 부분 수주하게 된다면,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경기 진작의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음.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UKUS를 통해 아시아 지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이고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됨.

○ 이러한 아시아로의 지향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여 확대로 나타남.
- 사실상 거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5개국 안보 협정(Five Powers Defence Arrangements, FPDA)"[7]의 재활성화 노력
- 영국의 최신예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와 순찰함 스페이호(Spey)와 타마호(Tamar)를 5년간 주둔 목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배치(Key 2022)
- ASEAN에서 대화 파트너의 지위를 획득(Key 2022)

○ 하지만 영국의 대외적 팽창 전략이 타당한가에 대한 회의나 의구심 역시 제기되고 있음.
- 기본적으로 "Global Britain"이라는 전략은 상징적인 것이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 영국의 국력 추이를 전세계 GDP 대비 영국의 GDP 비중으로 살펴볼 때, 영국의 국력은 특히 2010년 이후 퇴조의 모습이 뚜렷함(〈그림 2〉를 참고).
- 또한 현재 영국은 총 5척의 핵추진 잠수함(SSN)[8]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역외 지역에 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잠수함 전력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 논자는 미국과 영국의 이해관계는 아시아 지역에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영국은 환태평양 무역질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군사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지적; 또한 영국이 미국의 인태전략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서양 지역에서의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AUKUS로 글로벌 영국의 이미지는 조금 살렸는지는 모르지만 전통적 우방인 프랑스와의 관계

7_ 5개국 안보 협정은 호주, 뉴질랜드, 영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간에 1971년 체결된 안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협정임(Thayer 2007)

8_ 현재 6척의 핵추진 잠수함은 1척의 트라팔가급(Trafalga class) 잠수함과 4척의 어스튜트급(astute class) 잠수함으로 구성되어 있음 (Navy Lookout 2022)

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부각(Vinjamuri 2022)
- 인태 지향 전략에 대해 우려하는 또 다른 한 학자는 영국이 충분한 물적 뒷받침 없이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안보공약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안보공약이 될 수 있음을 지적(Watling 2021)
- 영국 야당 지도자인 스타머(Keir Starmer)는 AUKUS의 이익이 무엇이든 영국의 일차적 이익은 유럽에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보수당 정부의 아시아 지향 전략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계(Brooke-Holland et al. 2021: 13)

○ 요약하면, 영국의 경우 AUKUS를 통해 얼마만큼의 직간접적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군사적 관여 요구에 대해 이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제스처 정도를 취할 것으로 보임.



〈그림 2〉 전 세계 GDP 대비 영국의 비중, 1960-2020



Ⅳ

종합 분석

Ⅳ. 종합 분석

○ 여기에서는 AUKUS 관련 주요한 몇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의 형식을 통해 AUKUS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시도

1. AUKUS는 왜 결성되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 AUKUS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 중국 견제라는 군사안보적 필요에서 출발했음.

- 특히 미국의 공격형 잠수함 전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2030년대 중반 이후에 중국과의 군사적 우위 내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 잠수함 전력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제공을 제의

○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군사적 이득과 경제적 이득 모두를 추구

- 호주는 콜린스급 잠수함의 퇴역으로 해상 전력에 발생하는 공백을 프랑스의 신형 잠수함으로 대체하기보다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대체함으로써 군사적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영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 정부는 단순히 군사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육성과 국내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이익 역시 강력히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당 정부의 집권으로 이러한 국내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임.

○ 영국은 AUKUS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영국은 아시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가 있었고, AUKUS는 이 지역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협조할 의사기 있음을 보여주는 "비용을 수반하는 시그널(costly signal)"로 작용.

- 따라서 영국은 미국의 인태 지역에 대한 군사적 관여 요구에도 어느 정도 부응해야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의 추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결국 AUKUS는 그 자체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협력한다는 군사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보다 다양한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군사안보 이익에 일차적 목적이 있고, 호주는 군사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모두 추구하려고 하며, 영국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물론 군사동맹의 경우도 서로 경제적 협력을 통해 상호 국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Gowa 1995), 군사적 목적의 AUKUS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참여국가의 국익이 군사적인 이익으로 수렴하지 않는 점은 향후 갈등의 여지가 있음.
- 특히 군사적 목적을 추구하는 미국과 국내 (방위)산업의 활성화와 엄청난 재정지출에 걸맞는 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하는 호주는 이 문제로 갈등을 빚을 여지가 있음.
- 가능한 미국은 빠른 시간 내에 핵추진 잠수함의 배치가 실현되길 원할 것이고, 호주는 양자를 모두 고려할 것이기 때문임.
- 또한 미국은 영국에 경제적 이득의 댓가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보다 많은 군사적 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영국의 지나친 군사적 관여를 우려하는 국내 정치 세력의 반발을 낳을 수 있음.

2. 왜 미국은 호주를 택했는가?

○ “왜 미국은 호주를 택했는가?”는 그 자체로서 흥미로운 문제이며, “만약 호주가 아니었다면, 어느 국가를 택했을까?”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답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추측의 성격이 강하지만, 기존의 자료 등을 검토해 볼 때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들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첫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호주가 중국과 명확한 대척점에 있었다는 점임.
- 미국이 기밀 중에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핵추진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의미
- 이러한 신뢰는 호주가 중국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호주가 중국과의 경쟁에 반드시 동원될 수 있는 믿을 만한 국가라는 점에서 호주를 택했을 가능성이 큼.
- AUKUS 체결 당시 호주의 국방장관인 더튼은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 시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면 호주 역시 동참할 것이라고 밝힘(Reuters 2021).

○ 둘째로 미국이 호주를 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NPT 체제에서 전혀 문제 삼을 만한 기록이 없다는 점임,
-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 NPT 체제의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호주를 선호했을 것으로 보임.
- 백악관의 언론 브리핑에서도 미국 고위 관리는 호주가 NPT 체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음(White House 2021).

○ 셋째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당시 호주 역시 공격형 잠수함에 대한 수요가 있었음.
  - 물론 이는 필연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호주가 당시 프랑스와 신형 공격형 잠수함 계약을 맺고 있었고, 이러한 잠수함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점도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 제안에 매력을 느꼈을 만한 부분임.

○ 네째로, 호주의 잠수함 건조 능력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임.
  - AUKUS 체결 당시의 호주 총리인 모리슨은 이후 기자 회견에서 미국이 호주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호주를 선택했음을 강조(Brown 2022)

○ 마지막으로, 호주가 영연방이라는 점도 한 가지 요소로 작용
  - 미국이 신뢰하는 파트너가 영국이고, 또한 호주가 영연방에 속한 국가라는 점 역시 영국의 중재가 수월하게 통할 수 있었던 요소로 보임.

○ 만약 앞서 언급한 요소들이 미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미국이 호주 다음으로 고려했을 국가는 아마도 일본으로 보임.
  - 앞서 언급한 요소들 중에서 미국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아마도 중국과의 대결 의사를 분명히 했는가와 깨끗한 NPT 기록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였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호주 다음으로 가능성이 있었던 국가는 역내에서 일본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3. AUKUS는 순항할 것인가?

○ AUKUS의 목적이 결국 미국의 공격형 잠수함 전력을 보충할 수 있는 전력을 협력을 통해 호주에서 끌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AUKUS의 순항은

과연 이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될 것임.

○ 무엇보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은 향후 20년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도 긴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이 하나의 중요 변수임.
- 즉 20년의 기간 동안에 이 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많은 정권 교체와 이에 따른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향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음.
- 또한 미중관계의 변화, 호주의 국내정치적 변화, 그리고 호주와 중국과의 대립 관계의 해소 여부도 AUKUS의 순항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미중관계의 긴장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해도,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최소한의 군사적 균형 유지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호주의 국내정치적 변화와 호주와 중국과의 대립 관계의 유지가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 만약 중국과의 대립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핵추진 잠수함 계획에 대한 호주 국내의 지지가 크게 약화될 수 있음.

○ 또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핵주진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HEU) 이전에 따른 NPT 체제 관련 여러 복잡한 문제들과, 호주 주변국,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견제와 우려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AUKUS의 순항과 관련된 주요한 외부적 문제임.

○ 단기적으로 AUKUS의 순항 여부와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는 3개국 간에 18개월 간의 협의와 연구를 통해서 2023년 3월 혹은 4월까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는가이며, 이것이 향후 AUKUS 순항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임.
-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 계획을 추진 시, 엄청난 재정적 비용 부담과

2030년대 중반 잠수함 전력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딜레마를 안고 있으며, 18개월 리뷰 기간 후에 내려지는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특히 새로이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잠수함의 자국 내 건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포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AUKUS는 좌초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음.
- 잠수함의 공백을 단기적으로 메우는 것과 잠수함의 자국 내 건조는 상호 충돌하는 목표라는 점에서 과연 이 문제를 3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것인가가 향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임.
- 호주의 잠수함 공백을 메우는 한 가지 방법은 미국이 소수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호주에 인도하고, 이를 사실상 미국이 사용하는 것임.
- 최근 호주의 말즈 국방장관은 미국 방문 후 미국 측이 잠수함 전력의 공동운용(interoperable)을 넘어 공동사용(interchangeable)을 언급했다고 하는데(Curran 2022), 이는 호주의 수용 여부를 떠나 미국이 호주의 잠수함 공백 문제를 명목상 해결하려는 방안이 아닌가 추측됨.
- 또한 AUKUS를 통해 영국이 잠수함 건조에 어느 정도 참여해서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임.

4. 정책적 함의

○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의사를 밝힌 바 있었고,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었으며, AUKUS의 등장으로 이 문제가 더욱 활발하게 공론화된 바 있음(이병철 2021).

○ 하지만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듯이, AUKUS로 인해 미국의 NPT 체제에 대한 단속이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강화될 것임.

○ 본 연구에서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호주가 미국의 핵추진 기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며, 또한 NPT 체제에 대한 위반 전력이 없기 때문임.

○ 하지만 한국의 경우, 명확한 반중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19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하지 못함.
- 무엇보다, 핵추진 잠수함을 얻기 위해 반중 의사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므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AUKUS를 명분으로 한 핵추진 잠수함 추진 정책은 한미동맹 관계에 불필요한 마찰과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모순되는 정책일 수 있음.

○ AUKUS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 전략적 균형 혹은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맹인 한국에게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참고문헌

이병철. 2021, "AUKUS 동맹과 한국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담론," 『IFES 정책보고서』 2021-10.

Amaro, Silvia and Amanda Macias. 2021, "A Stab in the Back': France Rebukes Australia, Biden after Ditched Submarine Deal," *CNBC*, September 16, https://www.cnbc.com/2021/09/16/france-rebukes-australia-after-it-ditches-submarine-deal-.html (2022/04/15).

Brookes, Joseph. 2022, "Australian Shipbuilders Facing 'Valley of Death' Due to Nuclear Subs Uncertainty," March 1, https://www.innovationaus.com/australian-shipbuilders-facing-valley-of-death-due-to-nuclear-subs-uncertainty/ (2022/06/15).

Brown, Greg. 2022, "Election 2022: Scott Morrison Treads Water over Subs Job Numbers," *The Australian*, April 20, https://www.theaustralian.com.au/nation/politics/election-2022-pm-treads-water-over-subs-job-numbers/news-story/3b4a0f7995294bf115310834d1bb8e46 (2022/06/23).

Brooke-Holland, Louisa, John Curtis, and Claire Mills. 2021, "The AUKUS Agreement," The House of Commons Library, October 11.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9335/CBP-9335.pdf (2022/7/2).

Burgess, Richard R. 2021, "Vice Adm. Houston: Sub Force Approaching Inflection Point of 50 SSNs," *Seapower,* November 17, https://seapowermagazine.org/vice-adm-houston-sub-force-approaching-inflection-point-of-50-ssns/ (2022/7/3).

Curran, James. 2022, "Marles' Alliance Rapture Discards Australia's Self-Reliance," *Financial Review,* July 24, https://www.afr.com/policy/economy/marles-alliance-rapture-discards-australia-s-self-reliance-20220721-p5b3lt (2022/7/28).

Eckstein, Megan. 2022a, "US Navy Avoided a 2022 'Trough' in Submarine Fleet Size, But Industry Challenges Threaten Future Growth," *Defense News*, January 3, https://www.defensenews.com/naval/2022/01/03/us-navy-avoided-a-2022-trough-in-submarine-fleet-size-but-industry-challenges-threaten-future-growth/ (2022/6/28).

Eckstein, Megan. 2022b. "Huntington Ingalls Considers Industrial Base Investment, As Sub Construction Lags Behind," *Defense News*, February 10, https://www.defensenews.com/naval/2022/02/10/huntington-ingalls-considers-industrial-base-investment-as-sub-construction-lags-behind/ (2022/6/30).

Eckstein, Megan. 2018, "Navy Finds Urgency In Staving Off A Sub Shortfall Decades In The Making," *USNI News*, March 8, https://news.usni.org/2016/03/08/navy-finds-urgency-in-staving-off-a-sub-shortfall-decades-in-the-making (2022/06/13).

England, Cameron. 2022, "Doubts Are Growing over Whether the Aukus Nuclear Subs Will Be Locally-Built," *The Australian*, March 22, https://www.theaustralian.com.au/business/doubts-are-growing-over-whether-the-aukus-nuclear-subs-will-be-locallybuilt/news-story/0aaab82f6f460179e27e27cbd12b6ad3 (2022/06/20).

Erlanger, Steven, 2021, "The Sharp U.S. Pivot to Asia Is Throwing Europe Off Balance," *New York Times*, September 17.

Fearon, James D. 1994, "Domestic Political Audiences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onal Dispu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1): 577-592.

Gowa, Joanne. 1995, *Allies, Adversaries, and International Trad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ross, Sybilla. 2022, "Australia's Dutton Says US Can Provide Two Nuclear Subs by 2030," *The Bloomberg*, June 1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6-19/australia-s-dutton-says-us-can-provide-two-nuclear-subs-by-2030 (2022/06/20).

Harper, Stephen J. 2020, "A Very British Tilt: Towards a New UK Strategy in the Indo-Pacific Region," Policy Exchange, https://policyexchange.

org.uk/publication/a-very-british-tilt/ (2022/3/1).

HM Government. 2021, "Global Britain in a Competitive Age: The Integrated Review of Security, Defence, Development and Foreign Policy," March 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lobal-britain-in-a-competitive-age-the-integrated-review-of-security-defence-development-and-foreign-policy (2022/11/13).

Kaushal, Sidharth. 2021. "What Does the AUKUS Deal Provide Its Participants in Strategic Terms?," September 21, 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what-does-aukus-deal-provide-its-participants-strategic-terms (2022/06/03).

Key, Ben. 2022. "Britain Tilts toward Indo-Pacific with Ship Deployment," *The Australian*, June 22, https://www.theaustralian.com.au/commentary/britain-tilts-toward-indopacific-with-ship-deployment/news-story/3dda8084e58a236adaeb658b81ccb7b5 (2022/6/22).

Landler, Mark. 2021, "Submarine Deal Gives Post-Brexit Britain Its Momenton the Global Stage," *New York Times*, September 18.

Larter, David B. and Aaron Mehta. 2020, "With DoD's Fleet Of 2045, The Us Military'S Chief Signalshe'S All-In on Sea Power," *Defense News*, October 8, https://www.defensenews.com/naval/2020/10/06/with-its-fleet-of-2045-the-us-militarys-chief-signals-hes-all-in-on-sea-power/ (2022/7/1).

Navy Lookout. 2022, "HMS Talent Retired. Royal Navy Down to Just 5 Attack Submarines," *Navy Lookout*, April 20, https://www.navylookout.com/hms-talent-retired-royal-navy-down-to-just-5-attack-submarines/#:~:text=The%20active%20SSN%20fleet%20currently,in%20service%20until%202024%2D5 (2022/7/14).

Niblett, Robin. 2021, "AUKUS Reveals Much about the New Global Strategic Context," September 18, https://www.chathamhouse.org/2021/09/aukus-reveals-much-about-new-global-strategic-context (2022/1/26).

O'Rourke, Ronald 2022a, "Navy Virginia (SSN-774) Class Attack Submarine Procurement: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April 28.

O'Rourke, Ronald 2022b, "Navy Force Structure and Shipbuilding Pla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April 27.

Peckham, Ben. 2021, "Labor jobs push 'may sink subs,'" *The Australian*, November 9, https://www.theaustralian.com.au/nation/defence/labor-jobs-push-may-sink-subs/news-story/1a8e4a2aa93899afcfc7affb1bc72d45 (2022/06/20).

Peckham, Ben. 2022, "Bridging Subs 'Capability Gap' Is Top Priority in Defence, Says Marles," *Weekend Australian*, June 1, https://www.theaustralian.com.au/nation/bridging-subs-capability-gap-is-top-priority-in-defence-says-marles/news-story/cc3c6c74b469ef02ba39ed667cac82a9 (2022/06/19).

Retuers. 2021. "'Inconceivable' Australia Would Not Join U.S. To Defend Taiwan - Australian Defence Minister," *Reuters*, November 12,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inconceivable-australia-would-not-join-us-defend-taiwan-australian-defence-2021-11-12/ (2022/06/28).

Shelbourne, Mallory. 2022, "New AUKUS Caucus Bill Calls for U.S.-Australia SubTraining Pipeline" *USNI News*, Jun 15, https://news.usni.org/2022/06/15/new-aukus-caucus-bill-calls-for-u-s-australia-sub-training-pipeline (2022/7/5).

Slattery, Michael. 2022, "AUKUS – A Reset for Australian Defence Industry by Michael Slattery," June 21, https://www.aumanufacturing.com.au/aukus-a-reset-for-australian-defence-industry-by-michael-slattery (2022/06/23).

Stewart, Cameron. 2021, "'Preposterous': AUKUS Creates More Problems than Solutions," *The Australian*, December 10, https://www.theaustralian.com.au/inquirer/aukus-gives-us-more-problems-than-solutions-and-our-safety-is-at-stake/news-story/fff5b011740957f5cc246eb641408894 (2021/12/11).

Stewart, Cameron. 2022, "It'S Sink or Swim as Labor Sets the Course for a Refreshed Fleet," *The Australian*, June 11, https://www.theaustralian.com.au/inquirer/its-sink-or-swim-as-labor-sets-the-course-for-

a-refreshed-fleet/news-story/31acdcb5877c21199b1b620f31fea612 (2022/06/19).

Thayer, Carlyle A. 2007, "The Five Power Defence Arrangements: The Quiet Achiever," *Security Challenger*, 3(1): 79-96.

The Australian. 2021, "Dilemmas over nuclear subs flow from AUKUS pact," December 12, https://www.theaustralian.com.au/commentary/editorials/dilemmas-over-nuclear-subs-flow-from-aukus-pact/news-story/ba7a262b516dac106f90d3d48ca4fadf (2022/06/21).

US Department of Defense. 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November 3. https://media.defense.gov/2021/Nov/03/2002885874/-1/-1/0/2021-CMPR-FINAL.PDF (2022/06/23).

US Department of Defense. 2022, "Navy to Commission Virginia-Class Fast Attack Submarine Oregon," May 27, https://www.defense.gov/News/Releases/Release/Article/3046176/navy-to-commission-virginia-class-fast-attack-submarine-oregon/ (2022/7/3).

US Department of Defense. 2021,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 https://media.defense.gov/2021/Nov/03/2002885874/-1/-1/0/2021-CMPR-FINAL.PDF (2022/6/8).

US Navy. 2021, "Attack Submarines-SSN," October 8. https://www.navy.mil/DesktopModules/ArticleCS/Print.aspx?PortalId=1&ModuleId=724&Article=2169558 (2022/6/24).

Unnithan, Sandeep, 2021, "Why India Could Be Leasing a Second Nuclear Powered Attack Submarine from Russia," *India Today,* September 5, https://www.indiatoday.in/india-today-insight/story/why-india-is-leasing-a-second-nuclear-powered-attack-submarine-from-russia-1849277-2021-09-04 (2022/6/24).

Vinjamuri, Leslie. 2022, "The Myth of Global Britain Brexit Left London Even More Dependent on Washington," *Foreign Affairs*. February 15.

Watling, Jack. 2021, "The Integrated Review: Can the UK Avoid Being Overcommitted? *RUSI*, March 21, https://www.rusi.org/explore-

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integrated-review-can-uk-avoid-being-overcommitted (2022/7/3).

White House. 2021, “Background Press Call on AUKUS,” September 15,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s-briefings/2021/09/15/background-press-call-on-aukus/ (2021/10/3).